

직장생활이 모유수유를 막는 장애물이라고요? ②

〈편집실〉

“간 호사님! 이 곳의 엄마들이 제가 자꾸 살이 빠지는 것은 모유수유를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몸이 축나서 그러는 거라며 그런 모유는 아기에게도 좋지 않으니 끊으라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런 상담전화를 받으면 당장에라도 달려가 그런 헛된 사실을 유포한 산모에게 꿀밤이라도 주고싶을 만큼 화가 난다.

술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유수유 못하게 권하는 사회라니까...

몇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확인해서 겨우겨우 사기를 높여주고 격려한 결과 지금까지 모유수유를 잘 하고 있다.

이제 곧 회사에 복직하면 건강관리실에서 모유를 짜 모아 보관해 가며 모유수유를 할 꿈에 부풀어 있다.

99년 3월, 내게도 귀한 딸이 생겼다. 임신동안 직원들을 교육하며 나도 귀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을 상상하고 흐뭇해하며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모유수유를 위한 첫걸음은 태어나자마자 분만장에서 젖을 물리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라마즈 무통분만법을 해서인지 출산은 순조로웠다. 간호사도 내가 젖을 물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나중에 교육하면서 알게된 일이지만 분만장에서 젖을 물리도록 허락해주는 병원은 거의 없었다. 여의도 성모병원 분만장 간호사님에게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다.)아기는 병원에서

부터 젖을 잘 빨기는 했지만 젖이 빨리 돌지 않아서 많이 고생했다.

교육했던 대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계속해서 젖 물리기를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제야 알았다. 어쨌든 첫 딸은 6개월까지 모유로 기를 수 있었다. 다행히 1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행운이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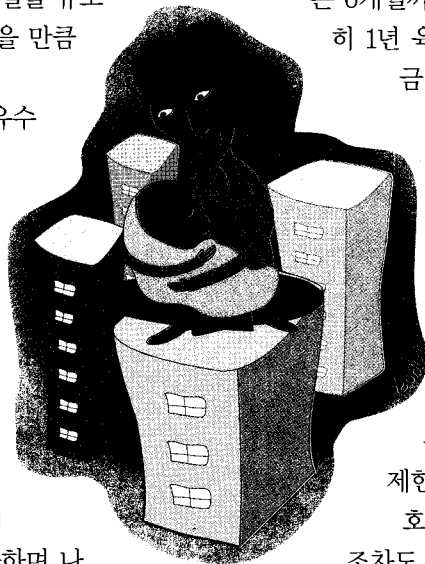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모유수유의 과정 역시 만만하지 않았다. 많은 자기포기도 따라야 했다.

사회는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에게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에 더 큰 각오가 필요했다. 잠시도 아기와 떨어질 수 없었고 외출할 때 입는 옷도 제한이 되었다.

호텔같은 좋은 시설이 되어있는 곳조차도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은 배려되지 않아 차안에서 몸을 가려가며 수유를 해야했다. 여럿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젖을 먹여야 하면 모두 쑥스러운 듯 밖을 쳐다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도 젖을 물고 잠이 드는 아이를 품에 안는 행운이 내게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난 딸아이를 모유로 기르고 더 극성스런 교육자가 되었다. 좋은 물건을 써 본 사람이 더 잘 판다고들 하는데 바로 그런 것 같다.

더운 여름, 건강관리실 2층 침대에 올라가 구



슬픔이 흐르도록 젖을 짜 나오는 직원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얼마나 당당한 직장 여성인가! 얼마나 건강한 이 땅의 어머니인가! 외근을 나가야 한다고 냉장고에 보관한 모유를 지하철역에서 시어머니에게 건네주며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신선한 젖을 줄 것을 당부하던 직원도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1박 2일 출장을 가서는 숙소에서 남자직원 모르게 젖을 짜 버리며 젖이 마르지 않도록 애쓰는 영업부 직원도...

난 이런 직원들 덕분에 행복하다. 그리고 이 교육을 더 신나게 한다.

그들에게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육아를 전담하는 엄마들에게 기죽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없다. 그들은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사랑하며 그런 열정으로 직장에서나 집에서 자신을 멋지게 가꾸어 간다.

재미있는 것은 직장 모유수유를 한 직원들은 모두 미혼때처럼 날씬하다. 후배들이 가끔 비결을 묻는다는데 그 때 마다 "모유로 아기를 키워봐!"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한다.

또 남편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난 우리 아기가 크면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모유를 먹이며 키웠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줄 꺼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젠 나에게도 많은 동역자가 생겼다. 직장 모유수유의 선배들이다. 그들은 자기 부서의 후배들에게 반드시 모유로 키울 것과 직장 모유수유의 장점 등을 자기 일처럼 홍보하고 다닌다. 임신을 하면 당연히 모유수유 교육을 들어야 하며 출산휴가 후에도 모유를 먹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의 일이 쉬워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열성과 아줌마들은 육아에 대한 관심도 남달라서 서로 만나면 좋은 육아 상식들을 나누곤 한다.

결국 모유수유는 좋은 엄마가 되는 지름길임

에 틀림없다.

직장내 모유수유를 보는 남자 직원이나 회사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런 일이 지금까지 가능했던 것도 이랜드라는 젊고 열린 분위기의 회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은 한시간씩 2차에 걸쳐 2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시간을 근무시간에 맞으려면 그만큼 임산부의 각오가 필요했다.

그 외의 시간에 자신의 일을 마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다부진 그들의 모습에 회사는 신뢰를 갖고 지켜봐 주었다.

남자 직원들도 아내를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함께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자신의 동료가 하는 모유수유의 실천에 자극을 받은 것이다.

"정말 몰랐어요. 미국이나 영국의 국민이 모유를 더 많이 먹인다니요?" "제 친구는 미제 분유만 먹인다고 자랑을 하던데 정작 미국 사람은 모유를 그렇게 많이 먹고 있군요." "전 친정어머니나 언니를 닮아서 젖으로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어제 교육받고 집에 가서 유륜을 잡아보니까 쪽 들어가더라구요, 그 함몰유두 교정기를 사야 할 것 같아요." 난 오늘도 이런 행복한 질문에 답하며 보람있게 건강관리실을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야무진 아줌마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한다.

다시 한 번 이런 사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어머니를 꿈꾸며 젖먹이기를 실천하는 멋진 직장여성들에게 파이팅을 보낸다.

그리고 이런 신세대 엄마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직장생활이 모유수유를 막는 장애물'이라고 믿는 후배 엄마들에게 새로운 힘과 격려를 줄 수 있기를 소원해 본다. **PPFK**